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항만연구본부 항만정책·운영연구실	성명	김찬호	직급	연구위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 「2024년 아태지역 개도국과 항만분야 협력 강화 및 기업진출 지원 연구용역」 (사업기간 : 2024.03.05. ~ 2025.03.04.)					
출장기간	2024. 05. 05.(일) ~ 2024. 05. 10.(금) (4박 6일)			출장지	브루나이 다루살렘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05.05(일)	인천(10:00) →Taipei(11:30) → 브루나이 반다르 세리 베그완(16:45)	항공 이동		OZ711(10:00~11:30) BI452(13:10 ~ 16:45)	
	05.06(월)	오전 : 오픈닝 행사 Agenda 1~4	· 46차 MTWG회의 Opening행사		Mulia Hotel	
		오후 : Agenda 5-6	· ASEAN ASSM 관련 추진 동향 및 지속가능한 해상교통이니셔티브 추진동향 파악			
	05.07(화)	오전 : Agenda 7-8	· ASEAN Port Association, FASA, WSC 등과 ASEAN 간 협력 동향 파악		Mulia Hotel	
		오후: Agenda 9	· 주요협력국(중국, 일본, 미국)과의 ASEAN 협력과제 동향 파악			
	05.08(수)	오전 : Agenda 10~13	· IMO, Regional Oil Spill Preparedness Activities 등 추진 동향 파악		Mulia Hotel	
		오후 : 46차 회의 폐회	· 논의 사항 정리 및 폐회			
05.09(목)~05.10(금)	브루나이 반다르 세리 베그완(17:55) →쿠알라룸푸르(20:25) → 인천(05.10. 07:10)	항공 이동		BI873(17:55~20:25) MH66(23:30~07:10)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46차 ASEAN MTWG회의의 참석을 통해 ASEAN 10개 회원국의 해운항만 분야의 추진동향 파악 및 항만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출장의 목적을 달성 ○ 주요 성과 - ASEAN의 '해상교통 분야 2026~2030년 전략'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한-ASEAN 간 협력사업의 안건 및 범위를 파악 - Dialogue Partner 국가로 참여하고 있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호주 등의 ASEAN과의					

	<p>협력사업의 범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ASEAN 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다시 설정하는 기회를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enda 5.1.2. ASSM구축의 경제성 효과 분석 관련 데이터의 유효성 문제로 한국의 PORT-MIS구축사례를 토대로 분석·제시하였으며, ASEAN사무국 및 말레이시아 MIMA의 제안으로 실무적 차원의 실행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제언과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제47차(24.9)에 보고하기로 합의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enda 5.1.1. 관련 ASEAN 항만의 효율성 분석 시 필요한 데이터(항만의 효율성 분석 관련 데이터)에 대한 한국측의 협조를 요청(말레이시아 MIMA) ○ Agenda 5.1.2. 관련 ASSM구축의 경제성 효과 분석 시 한국의 PORT-MIS 사례 및 PORT-MIS 기반 항만개발 및 운영정책에 대한 자료 협조 요청(말레이시아 MIMA) ○ Agenda 5.3.1. IWT관련 베트남 내륙수로국(VIWA)은 까이몹-깃라이 인근 지역의 바지 전용 선석 개발 필요성 사업에 대해 한국 측의 지원을 요청 ○ Agenda 9.3. 관련 한국측이 제안한 신규 협력사업에 대해 단순 Action Plan이 아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까지 확대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청(말레이시아 MI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 협력진행 사업 중 '여성 해양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베트남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후속 계획 등의 정보 공유를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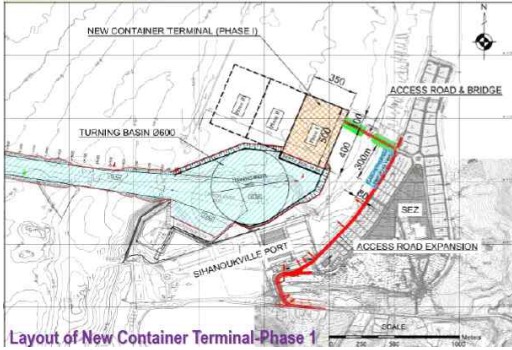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div> <div>■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div> <div>□ 국제행사 주최</div> <div>□ 국제행사 참가</div> </div> <div> <div>■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div> <div>□ 세미나, 교육, 훈련</div> <div>□ 기타 ()</div> </div>
업무①	5.6(월) 오전 : 46차 MTWG회의 Opening 행사 참석 및 Agenda 1-4관련 사무국 보고
수행계획	<div>□ ASEAN 사무국 및 46차 회의 의장국(브루나이 다루살렘)의 환영식</div> <div>□ Agenda 1-4에 대한 사무국 보고(46차 MTWG 논의 안건 상정, 56차 STOM 및 29차 ATM 관련 의제 결정 등</div>
수행결과	<div>□ ASEAN 사무국 및 46차 회의 의장국(브루나이 다루살렘)의 환영식 참석</div> <div> <div>■ 참석자 : 대표단(4명) 및 ASEAN 참여자 100여명</div> <div>■ 주요 내용</div> <div> <div>- 46차 ASEAN MTWG의 의장국인 브루나이 다루살렘은 환영사를 통해 향후 2년간 ASEAN MTWG 회의 개최를 통해 ASEAN 회원국, Dialogue Partner 국가(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호주 등), 국제기구(IMO, UNESCAP) 및 협력기구(ASEAN 항만협회, ASEAN 선주 협회, WSC) 등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ASEAN 지역의 해상교통 분야의 발전을 도모 하자고 강조</div> </div> </div> <div>□ Agenda 1-4에 대한 사무국 보고</div> <div> <div>■ 참석자 : 대표단(4명) 및 ASEAN 참여자 100여명</div> <div>■ 주요 내용</div> <div> <div>- 46차 MTWG회의 의제 채택</div> <div>- 56차 STOM, 29차 ATM, 16차 COW 회의 의제 채택</div> <div>· (STOM 주요의제) 스마트항만 가이드라인 및 미래 해상교통재난에 대한 ASEAN 지역의 대응능력 강화 방안,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가이드라인, 항만디지털 및 자동화 가이드라인. 선박폐기물관리 부분의 ASEAN 지역 협력 등</div> <div>· (ATM 주요의제) 탄소중립 관련 ASEAN의 전략, ASEAN 지역 전기자동차 경제시스템 구축 등</div> <div>- ‘해상교통 분야 2026~2030년 전략’ 의제 논의</div> <div>· ASEAN 지역 항만 간 연계성 강화, 스마트 항만 및 기술 적용 촉진, 해운·항만분야의 안전 및 보안 강화, 지역해상교통의 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IMO규제 적용, SAR 관련 역량강화, 친환경에너지 활용 확대방안, 드론시스템 이용 촉진, 교통분야의 스마트기술 적용 강화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div> </div> </div> <div>   </div>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②	5.6(월) 오후 : Agenda 5-6 논의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enda 5.1.1. 관련 질의응답(ASEAN 항만의 KPI) □ Agenda 5.1.2. 관련 주제발표(ASSM 구축의 경제적 효과)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enda 5-6 관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대표단(4명) 및 ASEAN 참여자 100여명 ■ 주요 내용(Agenda 5.1.1. ASEAN 항만의 K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25차 MTWG회의 이후 45차 회의까지 ASEAN 46개 항만(컨테이너)에 대한 항만 생산성을 브루나이와 한국의 KMI가 분석하여 발표 - 46차 회의에서는 말레이시아 측이 컨테이너 부두의 효율성 측면에서 KPI를 분석하여 항만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브루나이하고 말레이시아의 MIMA측이 2025년까지 항만효율성을 분석하고 ASEAN차원의 정책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로 합의 - 단, 항만효율성 관련 자료에 대한 ASEAN 회원국의 제공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AIS 데이터 등 범용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며,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방법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해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 ■ 주요 내용(Agenda 5.1.2. ASSM 구축의 경제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enda 5.1.2는 한국-말레이시아-ASEAN사무국 간 별도의 회의를 통해 한국 측이 제시한 연구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 후 진행하자고 ASEAN 사무국이 요청함에 따라 5월 7일 회의 안건으로 변경됨 ■ 주요 내용(Agenda 5.1.3. ASEAN 회원국의 항만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 양곤 및 톨라와 항만의 컨테이너 부두의 처리능력을 하역장비의 성능향상을 통해 증대(3백만→7.8백만TEU)시킴 - (태국) 태국 중서부 지역의 Laem Rio항과 중동부 지역의 Laem Ao Ang항을 연계(총 연장길이 89.35km를 고속도로, 철도 및 터널 등으로 연계)하여 하나의 항만을 두개의 지역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2040년까지 총 4단계로 진행할 예정으로 총 하역능력은 8,400만TEU 수준으로 계획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One Port Two Side Concept</p> <p>Distance: 89.35 km with motorway, railway, and service road including at-grade and elevated sections and tunnel through mountainous areas</p> <p>Laem Ao Ang, Ranong Province (Andaman Coast)</p> <p>Laem Rio, Samut Prakan Province (Gulf of Thailand)</p> <p>Lege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ercity motorway and railway alignment Tunnel alignment </div>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Penang항의 '2023-2053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컨테이너터미널의 확장(2.3백만→7.4백만TEU)과 크루즈터미널의 부두확장(8천명→1.2만명) 등이며, Port Klang의 경우는 신규 컨테이너터미널(West Port Container Terminal)을 2024년 3분기에 개발을 시작할 예정(선석연장길이 4.8km의 하역능력 1,300만TEU) - (필리핀) '23~'24년 간 총 81개의 항만개발사업이 추진 중 - (태국) 방콕항만은 24,322㎡규모의 자유지역(Free Zone)을 개발할 예정으로 항만청, 세관 및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할 계획이며, Laem Chabang항만을 대상으로 3단계 개발사업이 추진된 예정이며, 여기에는 컨테이너터미널(선석길이 3.5km) 및 선석길이 950m의 다목적터미널 개발 사업 등이 포함 - (인도네시아) Dumai-Melaka Economic Corridores Multimodal Transport Project가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으로 진행률은 65.4%이며, 총 사업비는 1.5백만 달러 -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항만에 신규 컨테이너터미널을 2026년까지 개발할 예정으로 하역능력은 45만TEU/년이며 일본 JICA의 ODA Loan을 통해 개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Layout of New Container Terminal-Phase 1</p> <p>3D Layout of New Container Terminal-Phase 1</p> <p>Source: NK-066 I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Agenda 5.3.1. IWT 관련 추진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개발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 완료('23.9) - (라오스) IWT 사업으로 방콕-중국-미얀마-라오스 간 내륙수로 물류교통망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및 내륙수로 안전성과 환경보호를 위한 MOU 체결, KOICA 지원을 통한 River Port-MIS 구축사업, 라오스 국내기업과 친콕항만 개발을 위한 MOU 체결, 물류 시설 개발과 함께 라오스-미얀마 간 및 라오스-중국 간 물류 연계 사업 등이 진행 중 - (베트남) 베트남-캄보디아 간 IWT 관련 협정서에 대한 협의를 통해 캄측과의 프로젝트 이행의 어려움을 공유하였으며, 그 결과를 총리에게 보고 예정(10월 준비), 캄보디아와 라오스 간 국장급 회의를 통해 내륙수로 활용 강화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 한편, IWT¹⁾ 관련 베트남 내륙수로국(VIWA)은 까이몹-갯라이 인근 지역의 바지 전용 선석 개발 필요성 분석사업에 대해 한국 측의 지원을 요청 *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를 위해 베트남 내륙수로청과 협의하였고, 기 완료된 베트남 지원사업(32개항 기본계획 수립)과의 차별성 검토를 통해 지원 가능 예산 범위 확인할 필요
업무③	5.7(화) 오전 : Agenda 7-8 논의
수행계획	□ ASEAN Port Association, FASA, WSC 등과 ASEAN 간 협력 동향 파악
수행결과	□ Agenda 7-8 논의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대표단(4명) 및 ASEAN 참여자 100여명 ■ 주요 내용(ASEAN Port Association, FASA, WSC 등과 ASEAN 간 협력 동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A)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47차 APA회의 결과에 대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A의 추진전략 프로그램에는 인적자원개발, 항만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 지속가능한 항만개발 등의 목표가 포함 · 아울러 ASEAN 항만 간 싱글윈도우 개발이 포함되어는데, 47차 회의에서는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Maritime Single Window 구축 사례가 발표됨 - (FASA) SAR, 선박의 탄소중립, 안전 및 보안 등 해운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보고 - (WSC) '23년말과 '24년초의 국제무역 및 공급망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시기로 특히 홍해에서의 상업선박에 대한 공격은 선원의 생명과 화물 및 선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2분기에도 지정학적 불확실성, 국제적인 선거(미국, 유럽연합), 선대구조의 재구조화, 해적활동의 상승,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기구의 요구 증대 등 다양한 위협과 적극적인 대응마련이 필요
업무④	5.7(화) 오후 : Agenda 9 논의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협력국(중국, 일본, 미국, EU)과의 ASEAN 협력과제 동향 파악 □ Agenda 5.1.2. 관련 주제발표(ASSM 구축의 경제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 사무국 요청에 따라 5.6(월) 업무가 5.7(화)로 업무로 변경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enda 9 및 5.1.2. 관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대표단(4명) 및 ASEAN 참여자 100여명 ■ 주요 내용(Agenda 9 관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중-ASEAN 간 협력사업은 3년 이상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rry선의 안전관련 역량강화 사업, 항만관리를 위한 Model 3.09업데이트, 국가 싱글윈도우 전자인증 관련 워크숍, 중국-아세안 간 해양협력회의, Ferry선의 해상사고 커뮤니케이션 및 영상레이더 서비스 협력사업, Ferry 선박의 디자인 표준화 사업 등 - (일본) 일본-ASEAN 간 교통장관회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개별사업별로 5~10년 동안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보안 관련 ASEAN 지역 Action Plan 수립(Agenda 5.4.2.), VTS 역량강화 사업(Agenda 5.4.3.), 탄소중립항만 가이드라인 사업(Agenda 5.5.2.),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지역의 수로측량(Hydrographic Survey) 협력사업(Agenda 5.6.2.), 녹색선박 전략을 위한 정책개발(기술지원, 연구, 절차 및 가이드라인, 금융지원, Rating System 수립)(Agenda 5.7.1.), 루앙프로방 액션플랜·아세안-일본 크루즈사업 활성화 프로그램·선원정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통정책 역량강화 프로그램(Agenda 9.3.) 등을 수행 중 · 신규사업으로 해상교통안전과 효율성을 위한 사업(항만시설의 기술 표준화),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지역의 수로측량 공동조사사업(전자해도), 아세안 지역 송형선박의 안전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항로표지 개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4개를 제안 - (호주) 아세안 항만 개발을 위한 PPP 우수 사례 및 정보화 사업 진행 중 - (프랑스) 아세안 선박 폐기물 관리 전략 협력사업 진행 중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미국) US-ASEAN간 지속가능한 항만을 위한 워크숍(지속가능과 탄소중립 전략 검토, 각국 사례 토론, 미국 사례 공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 공유(정책 마련, 규정 수립, 금융 조달, 역량강화, 연구개발, 관리운영 방안 등) 및 US-ASEAN 해상사고 구조 대응 워크숍(영상레이더를 통한 해상 구조 서치 등 관련) 개최
- (EU) 아세안 지역과 지속가능한 연계 협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선원 및 선박의 안전 분야
- (한국) 한-ASEAN 해상교통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신규 제안사업 발표(해수부)
 - (추진현황)
 - ✓ 라오스 Port-MIS,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의 항만개발협력사업 추진현황(항만투자 협력과)
 - ✓ 필리핀 해양사고 저감과 환경보호 강화 및 국제해상교통제도 준수를 위한 해상 교통 관리시스템 구축과 역량강화 사업, 웹 플랫폼 기반의 e-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과 관련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 예정(첨단해운교통팀)
 - ✓ 필리핀, 베트남과 협력사업으로 선박 오일가스 저감 공동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진행 중(해사기술안전과)
 - ✓ 아태지역 대상으로 해사분야의 친환경·해양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IMO와 협력하여 진행 중이며, 여성 해양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해사안전정책과)
 - ✓ 캄보디아의 항로표지시설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테스트 베드 부표(3개) 설치 완료(항로표지과)
 - (신규 제안사업)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전 항만 액션플랜 수립을 위해 한국에서 아세안 국가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의 항만 시설물 안전 대응 현황과 이슈 그리고 필요 사업 등을 논의한 후 우선순위 사업을 도출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3개년 사업)하는 한-ASEAN 신규 사업을 제안
 - ✓ 제안에 대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말레이시아는 신규 제안사업이 액션플랜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 수립 까지 연계되어 추진(장기간) 될 수 있기를 요청
 - 한-아세안 협력진행 사업 중 '여성 해양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베트남이 관심을 표명 하면서 후속 계획 등의 정보 공유를 요청
- 주요 내용(Agenda 5.1.2. 관련)
 -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제출한 데이터의 유효성 문제로 한국의 Port-MIS 사례를 기반으로 아시안 단일 해운시장 비용편익 분석 진행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결과를 발표
 -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 사무국 및 말레이시아 MIMA는 사례 분석을 통한 비용 편익 분석보다는 실무적 차원의 실행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제언과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제47차(24.9)에 보고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들이 제안을 받아들여 의결
 - 단, MIMA의 분석에는 한국의 PORT-MIS운영 사례 및 PORT-MIS 관련 한국의 정책 사례 등이 포함될 예정
 - 47차 회의('24.9.15.) 시에는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후속사업 아이템 발굴과 추진일정 등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p>논의하여 '25년부터 진행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ASSM 관련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별 싱글원도우(국가물류종합정보 시스템)구축 사업을 한-ASEAN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ASEAN 사무국 및 말레이시아 MIMA와의 네트워킹 및 논의 필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업무⑤	5.8(수) 오전 : Agenda 10-13 논의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O, Regional Oil Spill Preparedness Activities 등 추진 동향 파악 □ UNESCAP-ASEAN 과의 협력 동향 파악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enda 10-13 관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대표단(4명) 및 ASEAN 참여자 100여명 ■ 주요 내용(Agenda 9 관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O) 법률적, 정책적 개선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문제 및 필요성 인식, 인적자원에 대한 역량강화, 법률 및 정책적 역량강화, 기술 및 인프라 측면의 역량강화 등의 과정을 통해 ASEAN 지역 전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 · (2023년 완료 사업) 필리핀의 연안여객선의 안전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연구, 태국 및 필리핀의 해양사고조사 프로그램 개발, ASEAN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Oil Spill 대응 계획 워크숍 · (2024년 진행 사업)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대상 해양사고조사 기초 교육, 태국 및 필리핀 대상 기름유출 방지-대응 계획 교육, 브루나이 대상 Ballast관리 교육 등을 진행 중 · (ASEAN 회원국 대상 장기 프로그램) 바이오연료 관련 가이드라인, 온실가스 프로젝트 (Green Voyage2050, GHG SMART, SMART-C GHG 등)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중 GHG SMART사업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나라가 지원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상 교통의 탄소중립과 관련 도서지역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사업 - (GISEA) ASEAN 지역의 기름유출대응계획 관련 워크숍, OPRC 이행관련 워크숍 등이 2023년에 수행되었으며, 2024년에는 BUNKERS Convention 이행 관련 워크숍, 기름유출 관련 대응 및 피해 보상에 대한 워크숍 등이 진행될 예정 - (UNES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교통의 디지털화 관련)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을 대상으로 항만의 디지털화를 위한 현황 및 디지털화 전환을 위한 지표 개발 사업을 2023년에 진행하였으며, 2024년 진행 중인 사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행안전 및 해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운항선박의 기술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대상국(ASEAN 지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가계획 및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목표. 한편, 2024년 신규사업은 디지털화 및 회복탄력성 사업으로 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p>규모 도서국을 대상으로 항만의 디지털화 및 기후 관련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책적 제안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p> <p>· (지속가능한 해상 연계성 강화 사업 관련) "Regional Action Program for Sustainable Transport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2022-2026)"의 일환으로 해상연계성, 디지털화 및 저탄소 모빌리티 및 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Expert Group Meeting on Autonomous Shipping in Asia and the Pacific (6월, 태국),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le Inland Waterway Transport Development(6월, 중국), 2024 Asia-Pacific Regional Forum on Sustainable Maritime Connectivity(7월, 피지), Seventh Asia-Pacific Day for the Ocean and Regional Ocean Dialogue(9월, 태국),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digitalization and resiliency in small ports in the Asia-Pacific region(11월, 한국) 등이 개최될 예정</p>
업무⑥	5.8(수) 오후 : 46차 MTWG 폐회
수행계획	□ 논의사항 정리 및 폐회
수행결과	<p>□ 논의사항 정리 및 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대표단(4명) 및 ASEAN 참여자 100여명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차 MTWG회의 동안 논의된 내용은 ASEAN사무국이 정리하여 참가국별로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한 최종 회의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 - 47차 MTWG회의는 9월 17일~18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될 예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